‘봉달이’ 지금 필요한 건 초반 스피드

베이징올림픽 마라톤에서 이봉주(38·삼성전자)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칠 경쟁자들의 윤곽이 잡혔다. 경북 김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3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관차 대전에서 온 오인환 삼성전자육상단 감독은 7일 이봉주의 근황을 전하면서 올림픽 전망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봉주 올림픽 마라톤 경쟁자들 윤곽

스피드 탁월한 케냐선수들 대거 참가

마라톤 왕국 케냐는 지난달 말 보스턴 마라톤을 4차례나 우승한 로버트 체루이요트, 런던 마라톤 1,2위인 마틴 렐과 사무엘 완지루를 베이징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했다. 체루이요트는 올해 2시간7분46초를 뛰었고 렐과 완지루는 각각 2시간5분15초, 2시간5분24초로 역대 마라톤 4~5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록을 생산했다.

2시간4분26초로 세계 기록을 보유 중인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에티오피아)와 2위 폴 터갓(케냐·2시간4분55초)이 이번 올림픽에 기권하면서 케냐 3인방이 우승을 다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 감독은 “케냐 선수들이 거액의 상금이 걸린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에서는 강세를 보이나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일본 도요타 육상단 소속으로 올림픽의 중요성을 체감한 완지루가 출전하기에 레이스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감독은 또 올해 2시간8분23초를 뛴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무바라크 하산 샤미(카타르)와 더위에 강한 스페인, 포르투갈 건각들도 이봉주와 경쟁할 선수들로 지목했다.

우수한 선수들이 총출동하면서 기록도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오 감독은 “예전 올림픽처럼 기록이 2시간11~12분대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2시간8~9분대에서 순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봉주도 2시간 8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 예정으로 대전 계족산에서 체력 및 지구력 강화 훈련을 치르고 있다. 8월 베이징의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를 고려한 체력 증강 훈련으로 날이 더워지는 5월 중순께 강원도 횡계로 장소를 옮겨 스피드 향상에 주력한다. 지구전에서는 이봉주가 경쟁력이 있지만 스피드가 뛰어난 케냐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초반부터 속도감을 유지하는 게 당면 목표로 다가왔다. 특히 코스가 평탄해 초반 페이스 유지가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됐다.

처음 뛴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4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는 이봉주가 마지막 올림픽 출전에서 메달권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빅 게임…최후의 승자는?

맨유 VS 첼시

11일 정규리그 챔프 결정

22일 챔스리그 단판 승부

‘더블 달성의 기쁨이냐 무관(無冠)의 굴욕이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시가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외나무 다리 대결을 앞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맨유와 첼시는 승점 84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운데 11일(한국시간) 밤 펼쳐질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정규리그 우승 향방이 결정된다. 맨유는 위건 애슬레틱과 원정경기를 펼치고 첼시는 볼턴 원더러스를 안방인 스탬포드 브리지로 불러들여 마지막 일전을 치른다.

양팀은 22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단판 승부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벌인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맨유와 첼시 중 어느 한 팀이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동시 제패하는 더블(2관왕)을 달성할 수 있고 둘 다 놓치는 불운을 맛볼 수도 있다.

양팀이 사이 좋게 정규리그 우승컵과 챔피언스리그 반지를 나눠가질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맨유가 정규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다소 유리하다.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맨유가 +56으로 +39인 첼시보다 17골이나 앞서 있다. 맨유가 위건전에서 승리하면 첼시-볼턴전 결과와 상관 없이 통산 17번째로 우승컵을 들어올린다. 자력으로는 우승할 수 없는 첼시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그렇다고 첼시가 절대 불리한 것은 아니다. 맨유의 상대인 위건이 최근 5경기 연속 무패(2승3무) 행진을 하고 있다.

맨유가 올 시즌 홈경기 4-0 승리를 포함해 2005-2006시즌 이후 상대전적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건의 최근 상승세는 부담스럽다.

양팀은 정규리그 우승컵을 건 혈투 후 11일 뒤 모스크바로 장소를 옮겨 챔피언스리그 정상 자리를 다툰다.

전덕형 100m ‘스피드맨’ 7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전덕형(왼쪽)이 임희남을 따돌리며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축구 亞 예선 남북전 예정대로 내달 서울서 개최

FIFA, 일정 축구협에 통보

국제축구연맹(FIFA)이 6월22일로 예정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남북전 서울경기를 ‘제3국’에서 치르자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FIFA로부터 6월22일 아시아 3조 예선 6차전인 남북대결 경기 시간과 장소는 물론 심판, 경기감독관, 심판 감독관 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북한축구협회 손광호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사무국을 방문해 남북전 서울경기를 제3국에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음에도 FIFA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반증인 셈이다.

FIFA는 실제로 지난 달 초 북한으로부터 아시아 예선 6차전을 서울이 아닌 제3국에서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나 원칙대로 한국의 홈경기 서울 개최권을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전 주심에는 말레이시아 심판이 배정됐고 일본인 심판감독관과 괌 출신 경기감독관이 6월2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진행한다. FIFA는 북한으로부터 제3국 개최 요청을 받고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단 안전대책을 문의했고 축구협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을 강조하며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가 선수단 안전대책을 문의한 뒤 심판진을 배정한 것은 서울 개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차기 회장 26일 선출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90여일 앞두고 수장을 잃은 대한체육회가 오는 26일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대한체육회는 7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26일 오전 11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이사들이 총사퇴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 정관 12조 4항에 따라 차기 회장은 김정길 전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2월까지 9개월만 체육회를 이끌게 됐다.

김정행·천신일 부회장 접전

임기가 비록 9개월이지만 오는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을 진두지휘하게 된 차기 회장 후보로는 김정행 부회장과 천신일 부회장 진영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용인대 총장과 대한유도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행 부회장은 지난 2002년 김운영 전 회장이 중도사퇴했을 당시 3개월간 체육회 직무대행을 맡는 등 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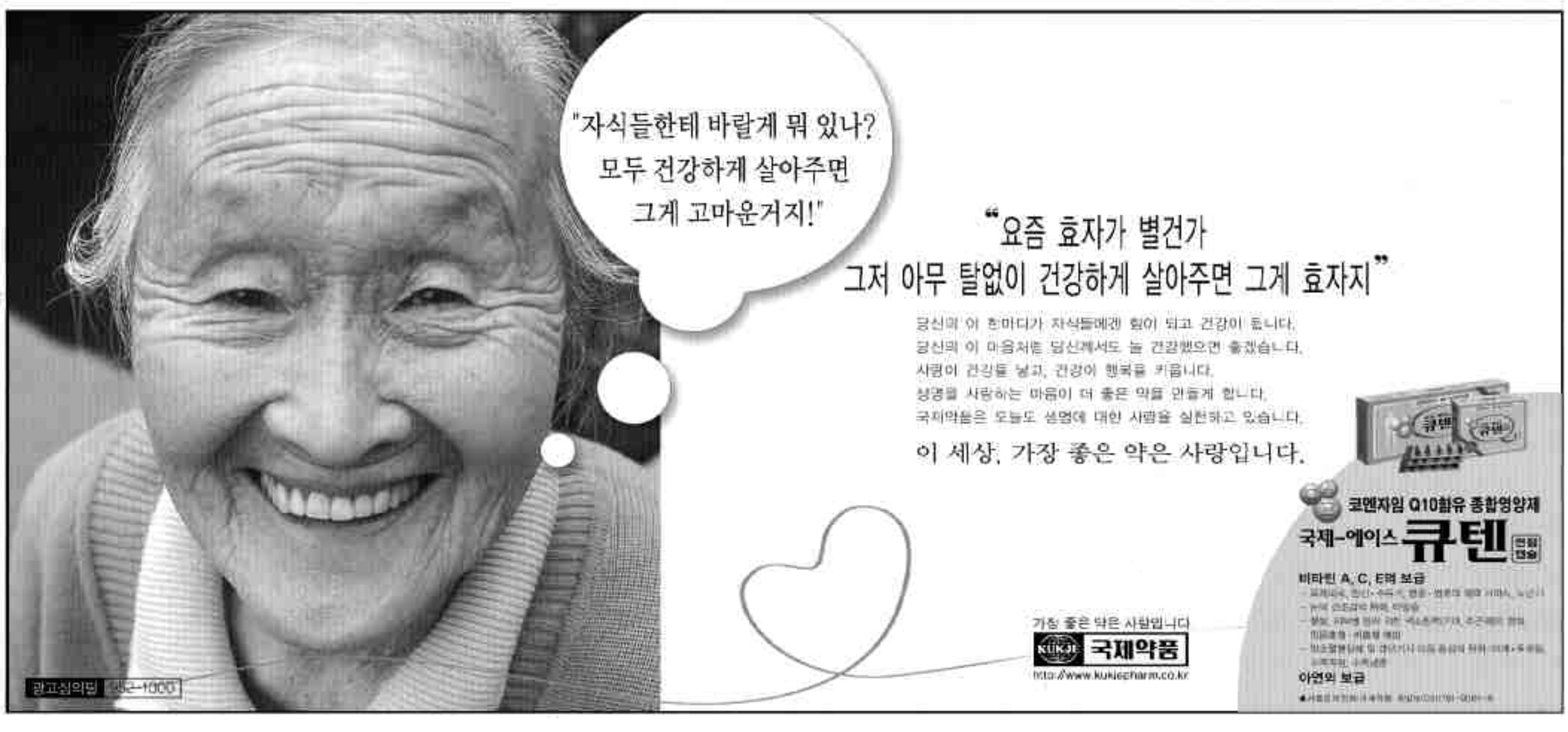
반면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천신일 부회장은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대신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국 한국체대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신일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체육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당권 도전의사를 밝힌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연택 전 체육회장 등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스포츠중계

8일(목)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R.마드리드 : 바르셀로나〉(05 : 00·KBS N SPORTS)

▲MBC 스포츠 WIBF 인터콘티넨탈 여자 밴텀급 챔피언 결정전(13 : 50·MBC)

▲베이징올림픽 유도국가대표 최종선발전(14 : 10·KBS1)

▲2008 삼성 PAVV 프로야구〈삼성 : KIA〉(21 : 00·SBS스포츠)